

# 광주연극협회 “광주 최대 연극축제 성공 주력”

최근 고난영 제14대 신임회장 선출  
시립극단 시즌 단원제 유치 등 노력  
내달 20일부터 광주국제평화연극제  
개막작 하이타이 등 8개 작품 공연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광주연극협회)의 제14대 지회장으로 고난영 여우장작소 회장이 선출된 가운데 오는 9월 20일부터 열리는 제20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난영 신임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연극협회 최초 여성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며 “1년 6개월 임기 동안 회원 중심의 소통과 화합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회장은 러닝메이트로 보궐선거에 함께 출마한 노희설 부지회장과 함께 협회를 꾸려간다. 고 지회장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짧지만, 광주연극협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는 포부다.

광주연극협회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시립극단 시즌 단원제 유치 △평화연극제 리모델링 △회원중심의 소통과 화합이다. 먼저 광주시립극단에 시즌 단원제를 요구, 상임단원이 없는 현안문제를 개선해 광주배우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복



고난영 지회장.

안이다. 고 지회장은 “국립극단의 상임단원이 없는 작품별 프로젝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창단된 광주시립극단은 국립극단이 프로젝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즌단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도 여전이 상임단원이 없다”며 “이는 타 시립예술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날뿐더러 레파토리 공연을 하기 힘든 점, 찾아가는 공연 등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공연활동 등에 있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립극단의 신임 예술감독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즌 단원제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연극협회가 주관하는 ‘광주연극제’와 ‘광주학생연극제’, ‘광주국제평화연극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고 지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자리매김 해 온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매년 반복되는 광주시 예산 삭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예산 증액과 함께 평화연극제 리뉴얼 작업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연극제로 재탄생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20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오는 9월 20일부

터 2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 일번지, 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사)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주최하는 연극 축제는 극단 바람꽃과 극단 시민의 합동공연으로 1팀, 해외 초청공연으로 2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한 2팀, 광주연극협회 정단체 공모를 통한 2팀, 개막 초청 공연 1팀으로 총 8개 작품이 상연된다.

먼저 20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하이타이’ 공연을 선보인다. 극 중에서 해태 타이거즈 최초의 응원단장 ‘임갑교’를 모티브로 한 ‘이만식’이라는 주인공이 나온다. 5·18과 6월 항쟁, IMF 같은 격동의 역사에 휘말리면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끝내 가족을 찾아가는 작은 인간승리의 드라마다.

22일에는 광주연극협회 극단 바람꽃, 극단 시민의 합동주제공연 ‘정의의 사람들’, 23일부터 26일까지 극단 가변 ‘어느 날 아침 깨어나보니 AI가 되어있었다’, 상상창고 ‘짐승의 시간’, 좋은친구들 ‘지상최후의 농담’, 유포시어터 ‘시간의 숲 무무’의 장막극 경연대회, 27일은 일본팀, 28일은 중국팀 공연을 끝으로 폐막식과 장막극 경연대회 시상식을 하며 축제가 막이 내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송영훈·양성원·김다미’ K-클래식 앙상블 무대

공연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광주문화재단은 2024 우수공연초청기획 두 번째 무대로 오는 31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송영훈&양성원&김다미 ‘비르투오소들의 조우’ 공연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2011년부터 ‘피아니스트 양성원의 냉정과 열정사이’ 시리즈를 런칭해 현재까지 전국투어를 통해 두터운 팬덤 층을 형성해 온 최정상 피아니스트 양성원과 2015년부터 KBS 1FM ‘송영훈의 가정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첼리스트 송영훈, 그리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실내악 연주 경험으로 앙상블 연주자로 정평이 난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가 함께한다.

예술적 기교가 뛰어난 연주자를 의미하는 ‘비르투오소’라는 명칭답게 솔로부터

듀오, 트리오까지 수준 높은 실내악 앙상블로 감동을 선사한다.

인터파크 클래식 부문 예매 2위를 유지하는 등 핫이슈를 몰고 다니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끌고 성장리에 전국 투어 중인 이 공연은 ‘타이스명상곡’, 쇼팽의 ‘녹턴’, ‘슈만’의 ‘환상소곡집’부터 세계적인 명곡인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The ghost)’ 연주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으로 7세 이상(초등학교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에서 (<https://www.ticketlink.co.kr/product/51115>, T.1588-7890)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https://www.gjcf.or.kr>) 및 빛고을시민문화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https://dmgi.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 아름다운 아시아의 춤, 온라인으로 즐긴다

온라인 플랫폼서 ‘스크린댄스’  
ACC, 예술의전당과 공동 기획

아름답고 화려한 아시아 춤 한데 모은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예술의전당(SAC, 사장 장형준)이 손잡고 오는 9월 30일까지 SAC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digital.sac.or.kr)’를 통해 아시아의 춤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복합문화예술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아시아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이에 ACC의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예술의전당의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ACC는 ‘디지털 스테이지’를 통해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6

개국 7편의 ‘아시아스크린댄스’ 특별 영상을 공개한다.

이는 오는 10월 4~6일 ACC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아시아스크린댄스’ 본 행사에 앞선 사전 행사다.

상영작은 △싱가포르 발레, 날기(Soar, 翔) △말레이시아 궁정무용, 가블란 댄스(Gamelan Dance, Joget Gamelan)와 현대무용, 코퍼스(Corpus, Korpus) △스리랑카 건국 설화, 비자야 왕자의 도착(Arrival of Prince Vijaya, Vijayavatharanaya) △인도네시아 현대무용, 새로운 삶(Brand New Life, Hidoep Baroe) △미얀마 전통 민속춤(Myanmar Traditional Folk Dance) △캄보디아 전통춤과 현대무용의 접목, 쌀(Rice, Srov)이다.

ACC는 아시아 공동의 노력과 연대로 아시아의 다양한 무용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아시아무용커뮤니티를 조직했다. 이 커뮤니티는 아시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두레’와 같은 상호부조와 협동 공동체로 현재 동남아시아 10개국 남아시아 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스테이지’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공연 영상 전문 플랫폼으로 등록 회원 수 5만 5000명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세계적인 연주자인 조성진, 임윤찬의 공연 실황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으며, 연극 ‘오셀로’, 발레 ‘지젤’ 등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중계 서비스를 제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SAC의 디지털 스테이지를 통해 아시아 춤이 전국의 관객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아시아 춤과 음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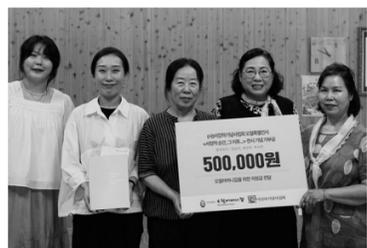
## 이강하미술관, 5·18기획전 성료 기념 기부금 전달

임남진·박수만·표인부 작가

이강하미술관은 최근 오월특별전시 ‘서정적 순간, 그 이후...’를 성료하고 전시에 참여한 임남진, 박수만, 표인부 3인의 작가와 함께 모은 기부금을 오월어머니집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정적 순간, 그 이후...’는 (사)이강하기념사업회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오월전시회로 5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1980년 일상 속 광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며 오월을 마주했던 광주 출신의 임남진, 표인부, 박수만 작가가 참여했다.

이전 (사)이강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연료하신 광주 오월어머니들의 아픔과 희생을 위로하고, 안부를 묻는 의미로



전시회 참여 작가들과 뜻을 모아 작은 기부금을 준비했다”며 “(사)이강하기념사업회는 매년 5·18 시민군이었고 ‘무등산의 화가’로 알려진 고 이강하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기억하며 동시대 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오월전시회를 기획해 선보이고 있다. 그 예술적 메시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시민회관’ 이전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은 “남구 구동에 위치한 광주시민회관으로 청사를 옮기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신청사 △1층은 여

성전시관 Herstory, 북카페 은새암, 수유실이 △3층은 대표이사실, 정책개발실, 경영기획실이 △4층은 사업운영실과 돌봄지원단, 회의실이 있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지난 11일까지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완료했다.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업무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